

글쓰기 책의 진화

‘우리글 바로 쓰기’에서 ‘치유하는 글쓰기’까지

감정, 생각,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하는 글쓰기
‘치유하는 글쓰기’ 이후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기대

김수영 한겨레출판 편집장

초등학교 시절 ‘참 잘 했어요’ 도장은 마력이 있었다. 남녀 두 어린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이로 ‘참 잘 했어요’란 글씨가 새겨진 도장이 찍힌 숙제 공책이나 일기장을 들고 환하게 웃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일기장 검사 뒤에 선생님이 달아주던 말 한 마디에 가슴이 뛰던 기억도 있다. 최초의 ‘치유하는 글쓰기’랄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기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담는 걸 주저하게 된다. 누군가 자기 내면을 검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괴로운 글쓰기가 될 수밖에. 게다가 위인전 독후감 숙제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때부터인가 보다. 글쓰기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바뀌는 게. 글쓰기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공감하지도 못한 채 계속 ‘느낌’을 쓰라는 압박을 받으니 고통일 수밖에 없다. 위인전 이 대개 그렇듯 ‘애국주의’를 담은 책만을 읽고 어린 영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쓰기는 지금도 고역이다. 아니 두려운 존재이다. ‘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의 권위주위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탓도 클 것이다.

글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신문마다 개최하고 있는 신춘문예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학상도 늘었고 문학상마다 응모하는 편수도 100여 편이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에도 수강생들로 넘쳐난다. 관심조차 갖지 않던 대학들도 앞다투어 글쓰기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삼을 정도이다.

글쓰기는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위주의 시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

한 사람들의 자기표현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게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글쓰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요구도 한몫하고 있다. 때 맞춰 글쓰기 책도 다종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글쓰기 책의 범주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크게 어휘를 향상시켜주는 책, 단어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책, 문장론을 다룬 책, 그리고 교과서적인 글쓰기를 지양하며 등장한 ‘독특한 글쓰기’ 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휘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다. 국어사전을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보고 또 보았다는 우리 소설가들도 있지 않은가. 물론 성장 환경, 독서량, 습작량, 생각의 깊이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소설가들의 빼어난 문장, 자유자재의 단어 구사에는 국어사전의 탐독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작가는 물론이고 어떠한 이유로든 글을 쓰려는 사람, 출판편집자들에게도 사전은 너무나 소중한 스승이자 동료이다. <국어사전>은 말할 것도 없고 <없어져가는 우리 말 모음사전> <바른 말글 사전>, 전국의 방언을 집대성한 <방언사전> <민족 생활어 사전> <속담 사전> 등 생각 밖으로 다양한 사전이 이미 나와 있다. 심지어 <우리말 상소리 사전>까지 있다. 사전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의 척도라고 한다. 앞으로 좀더 풍부한 사전류가 나와 사전창고가 가득 찬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글쓰기 책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 가운데 소설가 이태준의 <문장강

화)는 단연 돋보인다. 이 책은 1940년 초판이 나왔고 한 차례 개정판을 거쳐 1988년 창비에서 복간한 책으로 20여 년 가까이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초기 글쓰기 책은 문장론보다는 '우리글(말) 바로 쓰기'에 초점을 맞춘 게 많았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미국 문화의 영향으로 왜곡된 우리글, 우리 문장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이오덕 선생의 《우리글 바로 쓰기》(1992, 한길사)가 대표적인 책이다.

차츰 문장 다듬기에 초점을 맞춘 책들도 선을 보인다.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1994, 한겨레신문사)가 대표적인 책인데, 표지에 논술고사 준비생, 글쓰기 지도교사, 입사 시험생, 언론사 기자, 일반 직장인을 위한 문장 바로쓰기 길라잡이라고 성격을 밝히고 있다.

특정 장르의 글쓰기를 다룬 책들도 나온다. 1980년대 후반에 나오기 시작한 보성사의 '글 더 잘 쓰기 총서'는 불모지라 다름없던 글쓰기 책 분야에서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이 총서는 《동화 쓰는 법》 《그림책 쓰는 법》 《논픽션 쓰는 법》 《추리소설 쓰는 법》 《주부 작가로 성공하는 법》 등 장르별로 한 권씩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쓰기 책을 출간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맞아 영화 시나리오 쓰기 책도 나온다. 《시나리오 가이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한국형 시나리오 가이드》 등으로 영화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교과서 역할을 했다. 우리 시대의 논객인 강준만도 글쓰기 책을 내놓았다. 《대학생 글쓰기 특강》 《글쓰기의 즐거움》인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글쓰기 특강 강의록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글쓰기를 통해 '제대로 된 세상보기를 시도' 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적 학자인 테릭 젠센의 《네 멋대로 써라》라는 제목이 꽤나 도전적인 책은 '제대로 된 세상보기'를 뛰어넘어 놀이하듯이 글을 써가는 과정에서 물질만능 사회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철학을 세워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출판마케팅연구소의 출판무크 북페덱도 눈여겨 볼만하다. 2005년에 일곱 번째 책 《글쓰기의 힘》을 출간했으며 그동안 《어린이책》 《출판기획》 《청소년 출판》 《장르문학》 《논픽션》 《그림책》을 출간하여 글쓰기 흐름, 출판 흐름을 장르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있다.

소설가인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On Writing)

는 소설가를 주 독자로 한 책인데, 글도 좋지만 눈길을 끄는 제목이 한몫을 했다.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은 제목처럼 한 테마로 10장씩을 써가며 어떤 글이라도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책이다. 자지는 '기승전결' 중 '전'을 가장 먼저 쓰라는 독특한 글쓰기 법을 제시하고 있다. 《뺏속까지 내려가서 써라》(Writing Down The Bones)도 독특한 글쓰기 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내면에 거대한 글쓰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주변의 것들부터 하나씩 글을 써가다 보면 지하창고에 숨은 능력이 솟아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순례하라' '들판으로 나가라' '꽃의 이름을 불러주라' '나무를 만져보라'며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한다.

최근에 나온 《글쓰기의 전략》은 글쓰기 책으로는 보기 드물게 베스트셀러에 꽤 긴 시간 올라가 있다. 대학교수 두 명이 글쓰기 교양강좌를 한 내용을 기본으로 한 책인데, 해당 출판사에 따르면 독자는 대학생보다 오히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직장인이 많았다고 한다. 글쓰기 책이 교양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글쓰기도 진화를 거듭한다. 글쓰기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인 '자기와의 대화'에 다가가는 책이 나오고 있다. 이런 류의 책은 '대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교양인이 되기 위한 글쓰기》는 제목과는 달리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각 장 제목도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 '나를 찾기 위한 글쓰기' '글쓰기 모임 만들기'이다.

며칠 전 집필 의뢰 때문에 만난 작가의 얘기는 글쓰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치유하는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말로 하라면 주저하지요. 그런데 막상 글을 써오라면 노트 한 권 분량의 글을 써옵니다. 그러곤 건네 줄까 말까 고민해요. 결국 턱 넘기고 말지요. 그런데 글을 읽다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진실의 힘'으로 글을 쓰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감동적이지요."

사람들은 글을 쓰며 가슴속에 고이고이 담아두었던 감정, 생각들을 죄다 쏟아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며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한다. 독자는 물론이고 글을 쓰는 사람의 삶을 치유하여 풍요롭게 해주는 '치유하는 글쓰기' 이후 글쓰기 책이 어떤 모습으로 또 진화할지 자못 궁금하다. ❧